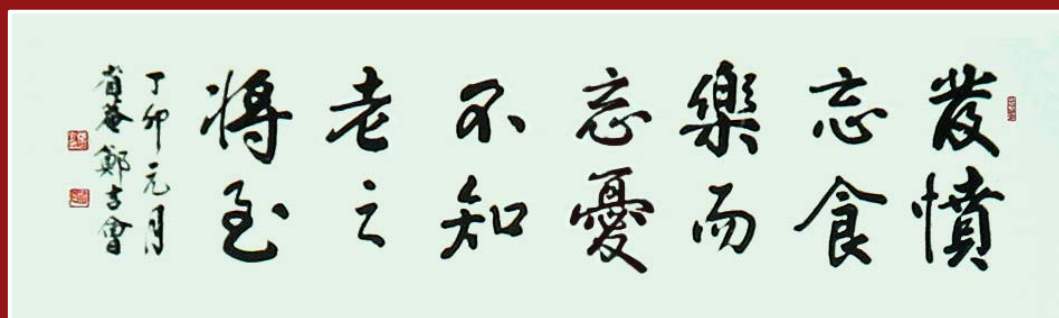


省菴 鄭吉會 書藝作品 圖錄



省菴 鄭吉會
書藝作品 圖錄



해설 : 본문 21쪽

〈머리말〉

圖錄을 펴내면서

甲午年(2014)의 싱그러운 5월입니다.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만,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 온 나라가 초상집입니다. 삼가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아울러 그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82년부터 2002년까지 20년 간 서예활동을 하다가 2003년부터 護錦 鄭如麟 將軍 책자 발간 업무관계로 부득이 서예활동을 중단하였습니다. 천박한 제가 이 도록을 펴내면서 拙作임에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아 두려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다만, 저는 평소에 사람이 산다는 게 무엇인지 또는 더욱 바른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며 지금껏 우직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 圖錄을 펴내면서 작은 보람이 있다면, 본인이 40여 년 동안 교직에 몸담으면서 낮에는 직장에 근무하고 밤 시간과 휴일을 이용하여 20년 동안 서실에 다니면서 서예를 연마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도취되어 부끄러움을 잊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본 圖錄에 실은 作品들은 제가 松坡書室에 다니면서 松坡 李圭珩 선생의 지도를 받아 이루어낸 것입니다. 송파 선생은 성품이 온후하고 품체가 흰칠하며 서예의 대가로서 지금도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이 拙작들을 애교로 봐주시고 오류나 부족함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라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편 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甲午年 (2014) 푸른 五月에

省菴 鄭吉會 拜上

〈獻詩〉

錦城金鞍洞은

羅州의 金鞍洞은

鄭氏世居鄉이라

鄭氏의 世居地라

文靖與景武는

文靖公과 景武公은

麗鮮尤有光이요

高麗와 朝鮮에서 훌륭했고

護錦飛將軍은

護錦 飛將軍은

其忠萬世芳이라

그 忠이 萬世에 빛나네

天性兼溫厲하고

天性은 溫和함과 威嚴을 兼하였고

貌似秀琳琅이라

容貌은 빼어난 美玉 같네

奉先竭誠孝하야

祖上께 誠孝를 다하야

友愛碑豎岡이라

先考兄弟 友愛碑를 언덕에 세웠다네

治家以勤儉하고

勤儉으로 治家하고

教子以義方이라

義方으로 教子하였네

半生育英才하야

半生동안 英才를 教育하야

養之國精糧이라

나라의 人才로 길러냈다

曾刊自敍傳하고

일찍이 自敍傳을 出刊하였고

今彰護錦行이라

이제는 護錦先生 行蹟을 顯彰했네

中年學書道하야

中年에 書道를 배워서

縱橫如鳳翔이요

縱橫으로 鳳이 춤추듯 하고

晚參文友會하야

晩年에 文友會에 參與하야

悅心習詩章이라

기쁘게 詩文을 익혔다네

今收殘詩書하야

이제 흩어진 詩와 글씨 收拾하야

欲圖一家藏이라

一家에 所藏코자 圖謀하네

過耄猶矍鑠하니

八旬이 넘어서도 元氣가 旺盛하니

南山壽無量이요

南山처럼 萬壽無疆할 것이요

有德必有報하니

德 있으면 報答함이 있나니

可占永世昌이라.

永世토록 繁昌함을 占칠 수 있으리라.

我皇天寶之年寶塔斯建同符千古昭
 有烈光於時道俗景附檀施山積庀徒
 度財功百其倍矣至二載勅中使楊順
 景宣旨令禪師於花萼樓下迎多寶塔
 額遂摠僧事備法儀

省菴 鄭吉會

1986.10.10. 전남도전입선
 안진경체(중국의 다보탑 비문 일부)

我皇天寶之年寶塔斯建同符千古昭
 有烈光於時道俗景附檀施山積庀徒
 度財功百其倍矣至二載勅中使楊順
 景宣旨令禪師於花萼樓下迎多寶塔
 額遂摠僧事備法儀

안진경 顏真卿 (709-784)

중국 당나라의 충신으로 서법의 대가이다. 자는 청신(淸臣)이며 당나라 현종 때 안록산의 난을 평정한 인물이다. 무인(武人)이었으나 해서(楷書)와 행서(行書)에서 왕희지(王羲之)(역시 무인(武人))에 필적할 만한 영향을 후대에 끼쳤다. 안진경체 글씨의 품격은 웅장하고 남성적인 필력(筆力)에 있다 하겠다. 여기에 쓴 여섯 작품은 모두 안진경체이다. 첫 작품인 아황천보지년보탑사건(我皇天寶之年寶塔斯建)이라는 구절에서 천보지년(天寶之年)은 당나라 현종(玄宗)(서기 742-756) 때 15년간의 연호(年號)이다. 안진경이 33세 무렵에 다보탑(多寶塔)이 건립되었는데, 이 탑의 비문(碑文)은 원래 안진경체가 아니나 뒤에 서법연구를 위해 안진경체를 집자(集字)한 것이다. 서법(書法)에는 해서(정자), 행서(반흘림), 초서(온흘림)가 있는데 이 작품들은 모두 해서이다. 나는 안진경체를 많이 쓰고 싶었으며, 이 작품들도 글의 뜻보다는 안진경체 서법을 연마할 목적으로 썼다.

寶塔斯建同符千古昭有烈光於時道
 俗景附檀施山積庀徒度財功百其倍
 矣至二載勅中使楊順景宣旨令禪師
 於花萼樓下迎多寶塔額遂摠僧事備
 法儀宸睠俯臨額書

省菴 鄭吉會

보탑사건동부천고소유열광어시도
 寶塔斯建同符千古昭有烈光於時道
 속경부단시산적비도도재공백기배
 俗景附檀施山積庀徒度財功百其倍
 의지이재척중사양순경선지령선사
 矣至二載勅中使楊順景宣旨令禪師
 어화악루하영다보탑액수총승사비
 於花萼樓下迎多寶塔額遂摠僧事備
 법의신권부림액서
 法儀宸睠俯臨額書

1987.11.16. 전남도전입선
 안진경체(중국의 다보탑 비문 일부)

金環摠持不遺若注瓶水九歲落髮住
 西京龍興寺從僧錄也進具之年昇座
 講法頓收珍藏異窮子之疾走直詣寶
 山無化城而可息爾後因靜夜持誦至
 多寶塔品身心泊然

省菴 鄭吉會

金環摠持不遺若注瓶水九歲落髮住
 西京龍興寺從僧錄也進具之年昇座
 講法頓收珍藏異窮子之疾走直詣寶
 山無化城而可息爾後因靜夜持誦至
 多寶塔品身心泊然

1988.09.09. 중국 다보탑 비문 일부
 제1회 광주직할시미술대전 입선
 안진경체 (중국의 다보탑 비문 일부)

講法頓收珍藏異窮子之疾走直詣寶
 山無化城而可息爾後因靜夜持誦至
 多寶塔品身心泊然如入禪定忽見寶
 塔宛在目前釋迦分身遍滿空界行勤
 聖現業淨感深悲生

省菴 鄭吉會

講法頓收珍藏異窮子之疾走直詣寶
 山無化城而可息爾後因靜夜持誦至
 多寶塔品身心泊然如入禪定忽見寶
 塔宛在目前釋迦分身遍滿空界行勤
 聖現業淨感深悲生

1988.12.07. 중국 다보탑 비문 일부
 제7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출품
 안진경체 (중국의 다보탑 비문 일부)

昇座講法頓收珍藏異窮子之疾走直
 詣寶山無化城而可息尔後因靜夜持
 誦至多寶塔品身心泊然如入禪定忽
 見寶塔宛在目前釋迦分身遍滿空界
 行勤聖現業淨感深

省菴 鄭吉會

1989.09.05. 중국 다보탑 비문 일부
 전남도전 입선 3회차
 안진경체 (중국의 다보탑 비문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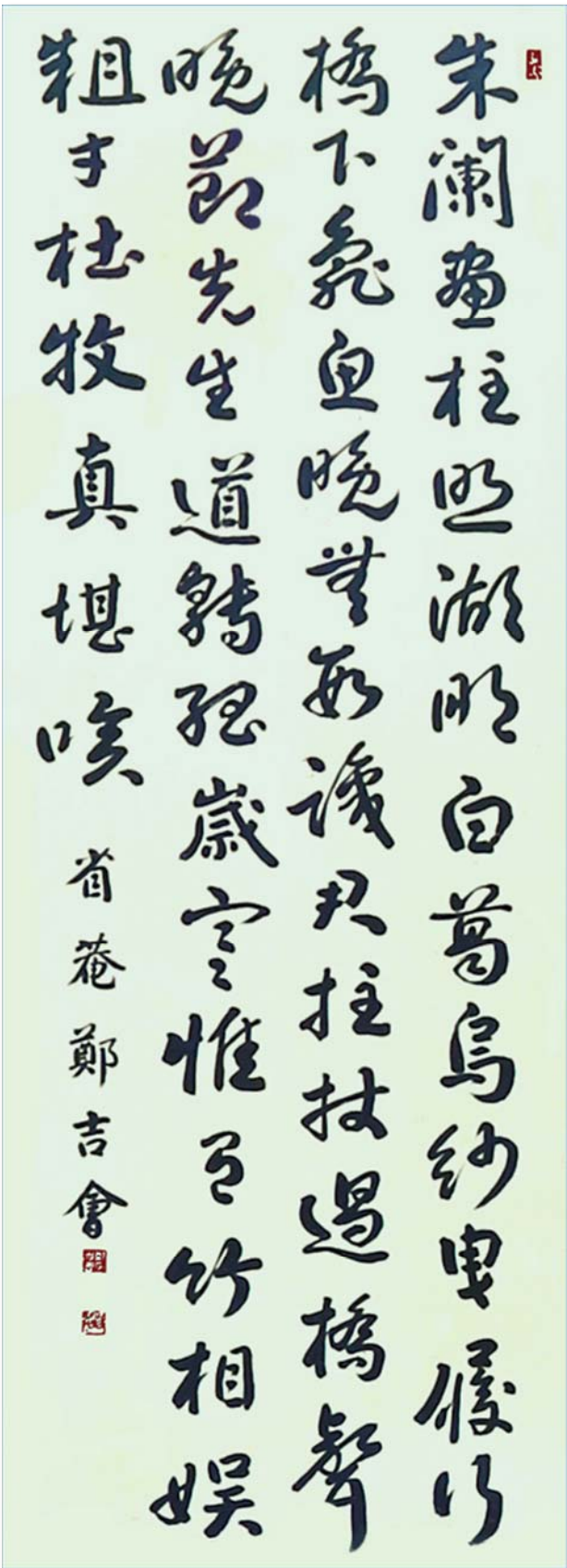
昇座講法頓收珍藏異窮子之疾走直
 詣寶山無化城而可息尔後因靜夜持
 誦至多寶塔品身心泊然如入禪定忽
 見寶塔宛在目前釋迦分身遍滿空界
 行勤聖現業淨感深

龍興寺從僧錄也進具之年昇座講法
 頓收珍藏異窮子之疾走直詣寶山無
 化城而可息尔後因靜夜持誦至多寶
 塔品身心泊然如入禪定忽見寶塔宛
 在目前釋迦分身遍滿

省菴鄭吉會

龍興寺從僧錄也進具之年昇座講法
 頓收珍藏異窮子之疾走直詣寶山無
 化城而可息尔後因靜夜持誦至多寶
 塔品身心泊然如入禪定忽見寶塔宛
 在目前釋迦分身遍滿

1994.4.15. 중국 다보탑 비문 일부
 제2회 대한민국서예대전 입선
 안진경체(중국의 다보탑 비문 일부)



1990.09.14. 유석암체 劉石菴體
제3회 광주미술대전 입선

粗才杜牧真堪嘆 <small>조재 두목진감소</small> (喚作中軍十萬夫) <small>환작중군십만부</small>	晚節先生道轉孤 <small>만절선생도전고</small> 歲寒惟有竹相娛 <small>세한유유죽상오</small>	橋下龜魚晚無數 <small>교하 구어만무수</small> 識君拄杖過橋聲 <small>식군주장과교성</small>	朱欄畫柱照湖明 <small>주란화주조호명</small> 白葛烏紗曳履行 <small>백갈오사예리행</small>
---	--	---	--

화주 앞에 붉은 난초 호수에 어려 밝고
처사의 옷을 입고 신을 끌며 다니네.
다리 아래 고기들 무수히 놀고
그대 지팡이 짚고 다리 지남을 알겠네.

지조 높은 선생 외로이 도를 전하니
세한에 오직 대와 서로 즐기네.
재주 없는 나를 두목이 비웃으리
(십만 군사 장군 되었음을.)

유석암체 劉石菴體

유석암체는 점획을 짧게 굵지만 뜻과 호흡은 길게 하여 자간 행간을 넓게 취하며 힘과 여운을 배려하면서 뱃심 있게 포치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필획마다 힘이 내장되어 있고 유정의 인간미가 있는 고아한 기품을 자아낸다.

汀洲生芳香 香草樹自閑
 治主郡黃士安 高文勇
 板我久踈悴 霜髭衛盈把
 琴泚吾把詒 津張廣筵窮
 盡傳清罕舞 龜驚浪翻
 學舞龜驚浪 旋歌扇嬌雲
 惹驪餘適晚 霽望外迷空
 野
 省菴鄭吉會

정 주 생 방 향 초 수 자 한 야 주 군 황 사 안
 汀 洲 生 芳 香 草 樹 自 閑 治 主 郡 黃 士 安
 고 문 용 반 가 원 아 구 소 체 상 자 위 영 파
 高 文 勇 拔 賈 願 我 久 踈 悴 霜 髭 衛 盈 把
 임 진 장 광 연 궁 진 천 청 가 무 구 경 량 번
 臨 津 張 廣 筵 窮 盡 傳 清 罕 舞 龜 驚 浪 翻
 가 선 교 운 야 환 여 적 만 제 망 외 미 공 야
 歌 扇 嬌 雲 惹 驪 餘 適 晚 霽 望 外 迷 空 野

물가에 꽃다운 향기 나니,
 풀과 나무는 저절로 오염하네.
 원님 황안 선비는
 문장이 훌륭하여 대번에 지가紙價를 올리네.
 원컨대 내 오랫동안 초췌하니
 가득히 술잔 잡아 백발을 막으려네.
 나무에 임하여 넓은 자리 펴고
 맑은 술잔 끝없이 주고받네.
 춤추는 거북은 번득이는 물결에 놀라고
 노래하는 부채는 아리따운 구름을 일으키네.
 기쁘고 또 마침 날씨도 걷히니
 멀리 바라보매 빈 들만 희미하네.

1992.8.11. 정주생방향 汀洲生芳香
 유석암체 劉石菴體 제5회 광주미술대전 입선

滕王高閣臨江渚 佩玉鳴鑾罷歌舞
 畫棟朝飛南浦雲 朱簾暮捲西山雨
 閑雲潭影日悠悠 物換星移度幾秋
 閣中帝子今何在 檻外長江空自流

甲戌新喜 石養 鄭吉會

1994.8.2. 등왕각 시 騰王閣詩
광주미술대전 입선

滕王閣詩 등왕각시
 왕발

등왕고각임강저 佩옥명란파가무
 滕王高閣臨江渚 佩玉鳴鑾罷歌舞
 화동조비남포운 朱簾暮捲西山雨
 畫棟朝飛南浦雲 朱簾暮捲西山雨
 한운담영일유유 物換星移度幾秋
 閑雲潭影日悠悠 物換星移度幾秋
 각중제자금하재 檻外長江空自流
 閣中帝子今何在 檻外長江空自流

滕王閣 詩 王勃

등왕의 높은 집 강가에 임했고
 사치스런 치장의 춤과 노래 그친 지 오래다
 아침이면 단청기둥에 남포의 구름 날고
 저녁이면 주름 밖 西山에 비가 흩뿌리네
 한가히 지나는 구름 연못에 비쳐 유유히
 세상은 바뀌어 몇 춘추가 지났고
 정자에서 놀던 사람들 지금은 어디에 있나
 난간 밖 긴 강물 하염없이 흘러가누나.

玄聲
 斷
 蒼
 雲
 中
 省
 菴
 鄭
 吉
 會

林亭秋已晚
 騷客意無窮
 遠水連天碧
 霜楓向日紅
 山吐孤輪月
 江含萬里風

1995.6.29. 유석암체
제8회 광주시전 입선

塞鴻何處去聲斷暮雲中
 霜楓向日紅山吐孤輪月江含萬里風
 林亭秋已晚騷客意無窮遠水連天碧

율곡 선생 시

수풀 속 정자에 가을 이미 늦었는데
 시인의 뜻은 무궁하다.
 멀리 보이는 물은 푸른 하늘에 연해 있고
 서리 내린 단풍은 해를 향해 붉더라.
 산머리 외로운 달 토해내고
 강바람 만리에 불어가네.
 아득히 나는 기러기는 어디로 가는가
 가늘게 이어지던 울음소리
 저문 구름 속에 끊기네.

이이李珣 (1536~15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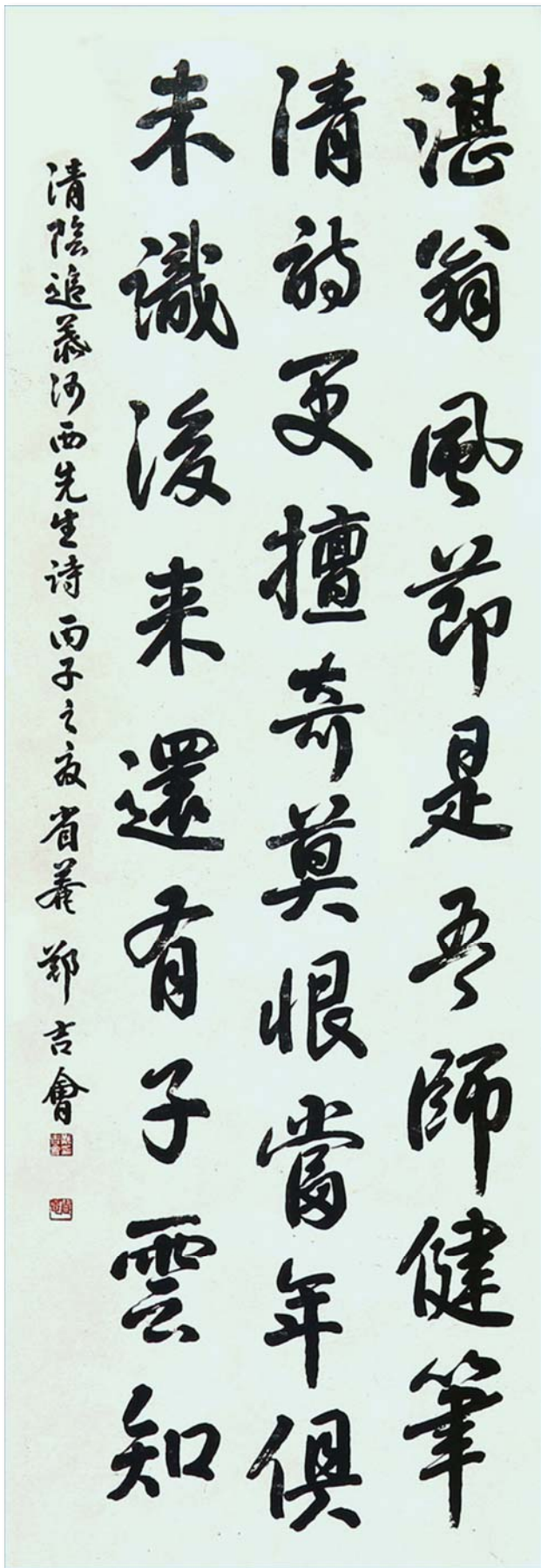
조선조 중기의 대학자. 호는 율곡栗谷, 시
 호는 문성文成. 어머니는 사임당 신씨. 문
 과급제(9도장원). 대제학, 이조판서 역임.
 동방성인東方聖人이라 했고 문묘에 배향되
 었다.



與^여天^천無^무極^극

우리 복은
하늘처럼 끝이 없어라.

1996.5. 여천무극 與天無極



1996.8.30. 김상헌 선생 시
광주시전 특선

湛翁風節是吾師 健筆清詩更擅奇
 莫恨當年俱未識 後來還有子雲知

청음 김상헌 선생이
 하서선생을 추모하여 지은 시.

담옹의 위엄과 절개는 나의 스승이며
 힘찬 필체와 맑은 시는 기이할 뿐이네.
 당년에 알려지지 못함을 한탄 마오
 뒷날 도리어 널리 알려지리라.

김인후金麟厚 (1510~1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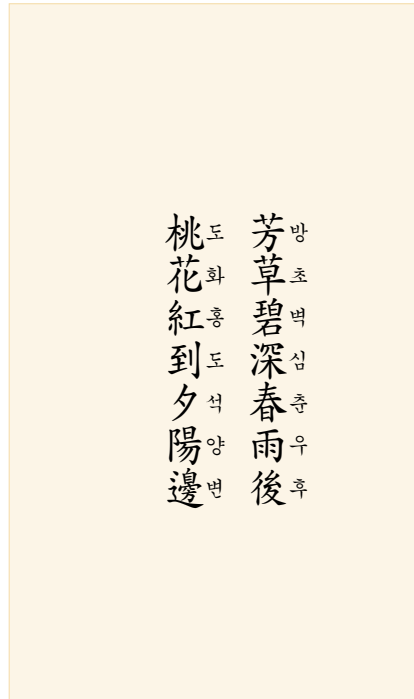
조선조 인종 때의 명신. 호는 하서河西 또는
 담재澹齋, 시호는 문정文正. 문과급제 성리학
 의 대가, 호남에서 유일하게 문묘에 배향
 됨.

김상헌金尙憲 (1570~16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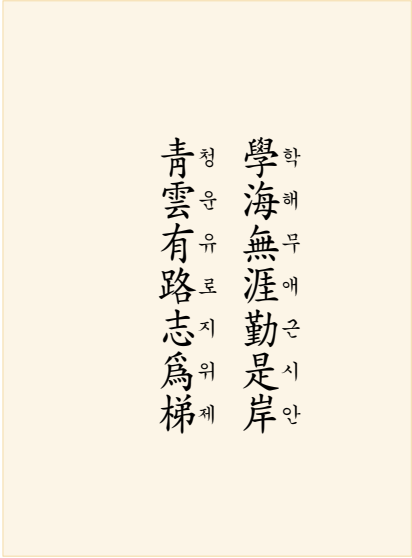
호는 청음淸陰 시호는 문정文正. 문과, 중시
 에 합격, 대제학, 좌의정에 이룸. 병자호란
 때 화의를 반대하다 심양에 끌려가 3년간
 고초를 당함. 명필이며 효종묘정에 배향되
 었다.



1997. 방초벽심 芳草碧沈



봄비 내린 후에
 향기로운 풀들은 푸르름을 더하고
 석양빛에 복숭아꽃 더욱 붉게 빛나네.



學海無涯勤是岸
 學 海 無 涯 勤 是 岸
 학 해 무 애 근 시 안
 青雲有路志為梯
 青 雲 有 路 志 為 梯
 청 운 유 로 지 위 제

배움의 세계는 끝이 없으니
 부지런함이 곧 언덕에 이르는 길이요
 큰 희망에 길이 있으니 굳건한 뜻이
 곧 사다리가 되리라.



2000.7.21. 복연선경 福緣善慶

복 연 선 경
福緣善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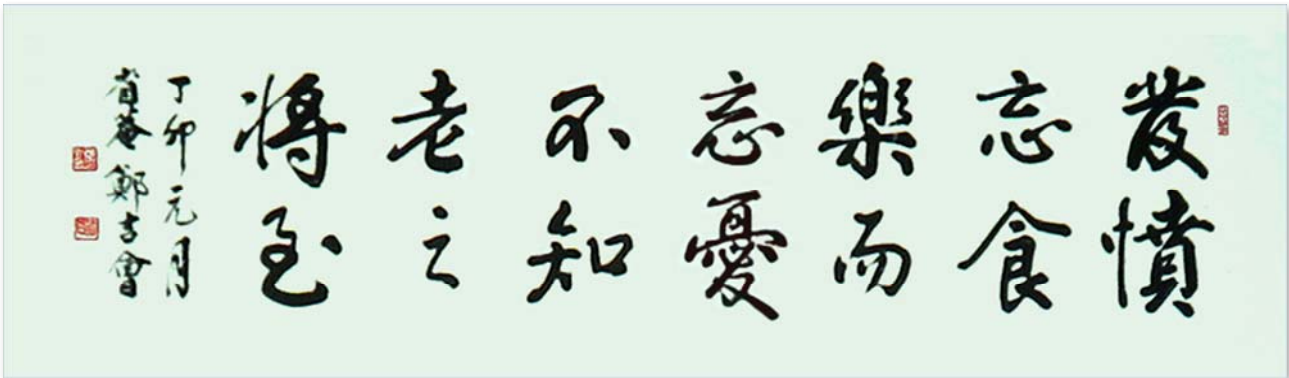
복은 착함과 연이 되어 온다.
(착하게 살자)



2002.11. 갈성진경 竭誠盡敬

갈 성 진 경
竭誠盡敬

은 정성을 기울이고 신중하고 삼간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1987.01. 발분망식 락이망우 부지노지 장지 發憤忘食樂而忘憂不知老之將至(孔子的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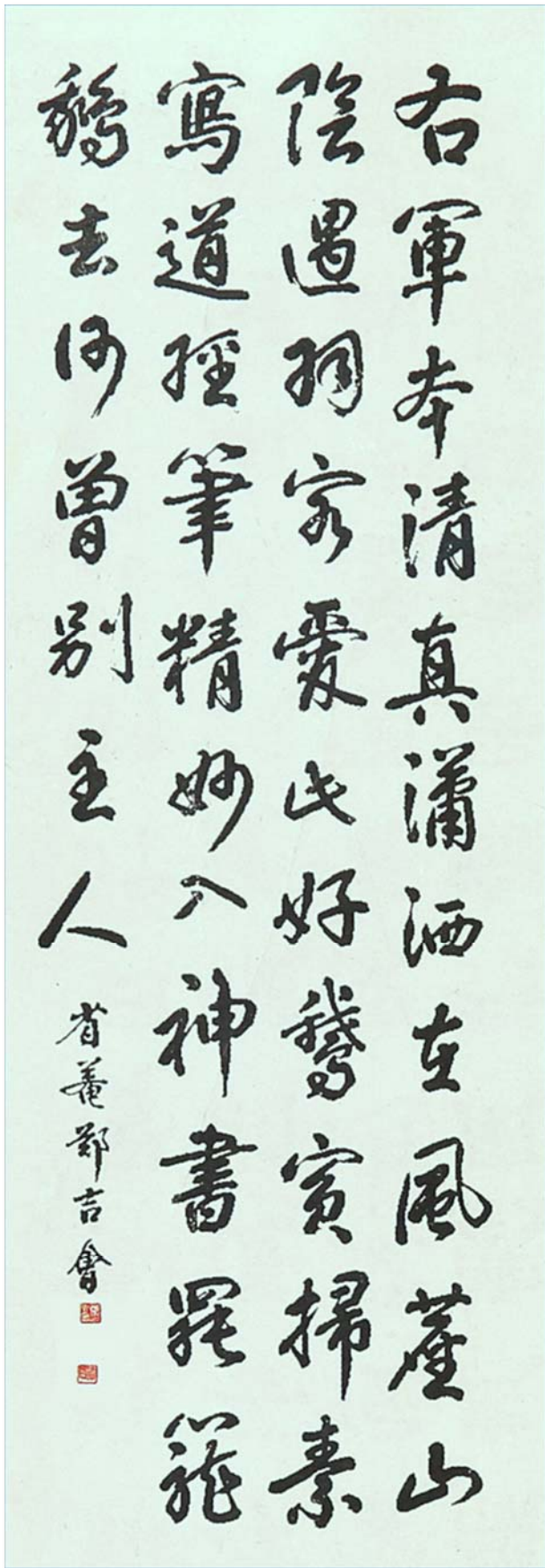
將^장老^노不^부忘^망樂^락忘^망發^발
 至^지之^지知^지憂^우而^이食^식憤^분

발분하여 끼니를 잊고 공부하니
 즐거워서 근심을 잊고 늙어감을 알지 못한다.



필^필견^견사^사웅^웅
 筆^筆健^健辭^辭雄^雄

필체는 힘차고 문장은 웅장하다.
 (힘 있는 필체, 웅장한 문장)



書罷籠鷺去	掃素寫道經	山陰遇羽客	右軍本清真
서파롱아거	소소사도경	산음우우객	우군본청진
何曾別主人	筆精妙入神	愛此好鷺賓	瀟灑在風塵
하증별주인	필정묘입신	애차호아빈	소쇄재풍진

왕희지는 우군장군이였다.
 우군은 본시 맑고 참되어서 풍진세상에서도 삶이 깨끗하였다. 산음에서 신선을 만났는데 신선 또한 거위를 좋아하더라. 비로 쓸 듯 도경을 베끼니 그 필체가 신의 경지에 이르더라. 쓰기를 마치고 거위를 챙겨가니 어찌 꼭 주인과 인사하랴.

우군右軍 : 왕희지
 우객羽客 : 신선
 籠 : 바구니, 롱, 새장 롱

2004. 우군본청진 右軍本清真

風吹柳花滿店香
 吳姬壓酒喚客嘗
 金陵子弟來相送
 欲行不行各盡觴
 請君試問東流水
 別意與之誰短長
 意興之誰短長

省菴鄭吉會

風吹柳花滿店香 吳姬壓酒喚客嘗
 金陵子弟來相送 欲行不行各盡觴
 請君試問東流水 別意與之誰短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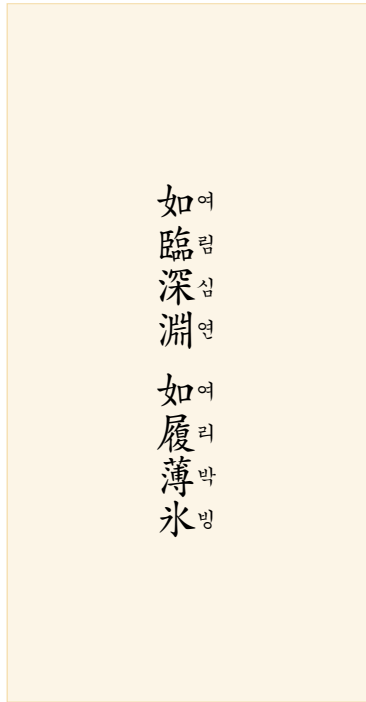
바람 불어 가게에 버들꽃향기 가득한데
 술집의 예쁜 여인 술을 거르며
 손님더러 맛보라 하는데,
 금릉의 자제들 서로 헤어지기 싫어서
 주거니 받거니 술잔들만 비우네.
 그대에게 물어보자
 강물의 흐름과 우리의 헤어짐의 뜻이
 어느 쪽이 더 짧고 어느 쪽이 더 긴가를.

金陵(금릉) : 중국의 옛 땅 이름.
 지금의 南京

2005. 이태백 시



임심리박 臨深履薄



如^여臨^림深^심淵^연
如^여履^리薄^박冰^빙

깊은 연못에 임하고
얇은 얼음을 밟듯
조심스레 세상을 살아감.
(老年의 지혜)

園序天倫之樂事
季俊秀皆為惠連其

人詠歌獨慙康樂
賞未已高談持清閑

瓊筵以坐花飛羽觴
而醉月不為佳作何

伸雅懷如詩不成罰
依金谷酒數

省養鄧吉會

春夜宴桃李園序

李太白

대체로 天地는 萬物의 逆旅, 光陰은 百代의 過客이다.
그리하여 浮生은 꿈과 같으니,
기쁨이란 그 얼마쯤이나 되는 것인가.
古人이 촛불을 잡아 밤놀이를 한 것은
참으로 까닭이 있는 일이다.
하물며 陽春에 煙景으로써 나를 부르고,
天地는 나에게 文章을 빌려 주었음에라.
桃李의 芳園에 모여서 天倫의 樂事를 편다.
많은 年少者는 모두가 惠連인데,
吾人의 詠歌는 홀로 康樂에 부끄럽다.
幽賞은 아직 그치지 않고 高談은 갈수록 맑은데,
瓊筵을 열어 꽃에 자리하고 羽觴을 날려 달에 醉한다.
佳作이 있지 않으면 어찌 雅懷를 펴라.
만약에 詩 안 되면 罰은 金谷의 酒數에 의할 것이다.

春夜宴桃李園序
夫天地者萬物之逆

旅光陰者百代之過
窮而浮生若夢為歡

幾何古人秉燭夜遊
良有以也況陽春台

我以煙素大塊假象
以文章會桃李之芳

8幅 屏風 春夜宴桃李園序 李太白

春夜宴桃李園序 李太白

夫天地者萬物之逆旅 光陰者百代之

過客 而浮生若夢 為歡幾何 古人秉

燭夜遊 良有以也 況陽春召我以煙

景 大塊假我以文章 會桃李之芳園

序天倫之樂事

群季俊秀 皆為惠連 吾人詠歌 獨慚

康樂 幽賞未已 高談轉清 開瓊筵以

坐花 飛羽觴而醉月 不有佳作 何伸

雅懷 如詩不成 罰依金谷酒數



백발이 되신 부모님은 천년토록 살으시고
슬하의 자손은 만세토록 영화로워라.

온화한 기운이 스스로 일어나니 군자의 집이요
봄별이 먼저 이르니 복된 집안이라.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움이 없고
백 번을 참으면 집안이 크게 화평하리라.

남과 다투지 않으니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공사를 위해 사사롭지 않으니 꿈도 또한 한가하더라.

마음속에 덕을 심으니 손님이 집에 가득하고
복된 곳에서 편히 사니 손님이 구름처럼 모이더라.

만리에 바람 불어도 산은 움직이지 않고
백년토록 물이 쌓여도 바다는 한량이 없네.

매화는 괴로운 추위를 겪고 나서 맑은 향기를 내고
사람은 어려움을 만난 다음에 기개와 절조를 나타낸다.

학문의 세계는 끝이 없으니 부지런함만이 곧 언덕에 이르는 길이요
높은 이상을 이루는데 길이 있으니 굳건한 의지만이 사다리가 된다.



8幅 屏風 堂上鶴髮千年壽

堂上鶴髮千年壽 당상학발천년수
 膝下子孫萬世榮 슬하자손만세영
 和氣自生君子宅 화기자생君子택
 春光先到吉人家 춘광선도길인가
 一勤天下無難事 일근천하무난사
 百忍堂中有泰和 백인당중유태화
 與人無私夢亦閑 여인불경심상정
 爲公無私夢亦閑 위공무사몽역한
 心田種德客滿堂 심전종덕객만당
 福地安居賓如雲 복지안거빈여운
 萬里風吹山不動 만리풍취산부동
 百年水積海無量 백년수적해무량
 梅經寒苦發清香 매경한고발청향
 人逢艱難顯氣節 인봉간난현기절
 學海無涯勤是岸 학해무애근시안
 青雲有路志爲梯 청운유로지위계

辛巳庚寅
省善鄭吉會

龍翔鳳舞

용상봉무 龍翔鳳舞

용상봉무
龍翔鳳舞

용은 하늘 높이 날고 봉황은 춤을 추다.

용과 봉황의 힘찬 기상을 노래함이니,
모든일이 대운을 타고 거침없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글이다.

省善鄭吉會

顯祖耀德

현조요덕 顯祖耀德

현조요덕
顯祖耀德

훌륭한 조상님의 덕이 빛나다.

漢詩 모음

— 詩友會 時節의 拙詩 몇 首 —

文友會는 重軒先生(諱尹丁鏞)에게서 漢詩를 배우기 위한 모임이었다. 會員은 瑞庵 尹宗漢 先生을 비롯한 10여 名이었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약 3년간 월1회씩 坡平尹氏의 祭廳인 瑞岡祠에 모여서 修學하였다. 그러다 先生께서 돌아가시니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끝이 났다. 漢詩의 基礎를 배우던 이때의 拙詩 몇 首를 여기에 올렸으며, 주로 내 故鄉과 祖上에 대해 읊어보았다.

상봉지기우 相逢知己友

친한 친구를 만나다

만 리 춘 풍 리
萬里春風裏

만 리에 봄바람 부니

천 산 야 우 중
千山夜雨中

모든 산에 봄비 내리네.

상봉지기우
相逢知己友

친한 친구가 서로 만나

기 사 옥 호 공
期使玉壺空

술 항아리 비우기를 기약하네.

가인파주 佳人把酒

아름다운 여인이 술을 가져오다

유 자 간 화 처
遊子看花處

노는 손 꽃을 구경하는데

가인파주시
佳人把酒時

아름다운 여인 술을 들고 왔네.

초당한차정
草堂閑且靜

초당이 한가하고 고요하여

독파소릉시
讀罷小陵詩

두보 시를 다 읽었다네.

유 자 : 여행을 하는 사람.

소릉시 : 두보의 시. (杜甫의 號가 小陵이었다.)

정여린 장군 鄭如麟 將軍 정여린 장군

오 조 경 원 사
 吾祖慶源使 나의 조상 경원도호부사는
 본 래 성 불 기
 本來性不羈 본성이 얽매이지 않았다네.
 고 사 안 주 목
 固辭安州牧 (이이침이) 안주목사를 권함에도 고사하니
 위 락 진 변 수
 威略振邊陲 위엄과 계략이 변방에 떨쳤네.

기羈 : 구속받을 기, 굴레 기.

나의 10대조인 鄭如麟 將軍은 慶源都護府使로 10년을 재직하면서 飛將軍이라 불렸으며 성품이 호매하여 권력에 아부하지 않았다. 李爾瞻이 吏曹判書로 재직시에 安州牧使를 除授할 테니 나와 함께 일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단호히 물리쳤다.

설재서원 雪齋書院 설재서원

무 궤 춘 추 향
 無闕春秋享 빠짐없이 춘추로 제향 드리니
 위 연 설 조 사
 巍然雪祖祠 매우 높도다 설재공의 사당이여.
 공 훈 전 백 세
 功勳傳百世 공훈이 백세에 전하니
 수 불 모 남 사
 誰不慕南司 누군들 남사를 추모하지 않으랴.

남사南司 : 당나라 때 재상의 별칭.

설재선생의 휘는 可臣(임금이 賜名함) 시호는 文靖, 벼슬은 僉議中贊(=門下侍中). 忠宣王廟에 배향됨. 千秋金鏡錄을 지으셨다. 중국에서는 海東夫子라 칭송했다. 설재서원에 주벽으로 모셨다.

명촌 금안동 명촌 금안동

제 일 가 러 지
第一佳麗地 제일 아름답고 고운 땅

무 쌍 태 화 시
無雙太和時 더없이 태평한 시절일세.

금 안 오 고 토
金鞍吾故土 금안동은 나의 고향이니

조 업 후 잉 지
祖業後仍知 조상의 업적을 후손들은 알리라.

후 잉
後仍 : 후손

예절유풍의 금안동 예절유풍의 금안동

예 역 유 풍 계
禮域遺風在 예절을 숭상하는 지역에 옛 풍속이 남아있고

인 촌 고 적 여
仁村古跡餘 이내촌에는 고적도 남아있네.

금 안 오 고 리
金鞍吾故里 금안동은 나의 고향이니

부 절 석 인 거
不絕碩人車 훌륭한 사람이 탄 수레가 끊이지 않네.

조 목 회 향
朝 暮 懷 鄉

고향생각

조 목 회 향 지
朝 暮 懷 鄉 志

조석으로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

몽 유 석 초 려
夢 遊 昔 草 廬

꿈에서도 옛집에서 논다네.

영 빈 경 구 양
迎 賓 傾 舊 釀

손님 맞아 묵은 술독 기울이고

류 객 케 신 소
留 客 饋 新 蔬

손님 만류하여 소찬을 대접했네.

유 주 수 상 호
有 酒 手 相 呼

술을 두고 서로 부르네

무 시 심 소 괴
無 詩 心 所 愧

시가 없어 마음속에 부끄러우나

유 주 수 상 호
有 酒 手 相 呼

술 있으면 손 흔들어 부르네.

촌 속 하 기 후
村 俗 何 其 厚

마을 풍속은 어이 그리 도타운고

흉 년 역 월 부
凶 年 亦 援 扶

흉년에도 또한 상부상조하네.

설 단 헌 시
設壇獻詩

삼세설단에 헌시하다

삼 대 제 단 성
三代祭壇成

삼세의 제단이 이뤄지니

오 문 영 월 명
吾門永遠明

오문이 영원토록 밝으리라.

용 장 엄 현 상
龍牆嚴現像

용담장은 엄숙한 형상 드러내고

구 갈 찬 호 성
龜碣讚呼聲

거북 비엔 찬양소리 들린다.

백 세 선 현蹟
百世先賢蹟

백세의 선조 자취

천 추 후 예 영
千秋後裔榮

천추에 후손이 번영하리.

연 년 향 화 진
年年香火奠

원컨대 해마다 제향을 올려

원 계 보 은 성
願繼報恩誠

보은의 정성을 이어가세.

2003年 3월에 羅州鄭氏 一, 二, 三世의 壇碑를 세우고
設壇竣工讚揚詩를 지어 올렸다.

〈獻詩〉

錦城金鞍洞은

羅州의 金鞍洞은

鄭氏世居鄉이라

鄭氏의 世居地라

文靖與景武는

文靖公과 景武公은

麗鮮尤有光이요

高麗와 朝鮮에서 훌륭했고

護錦飛將軍은

護錦 飛將軍은

其忠萬世芳이라

그 忠이 萬世에 빛나네

天性兼溫厲하고

天性은 溫和함과 威嚴을 兼하였고

貌似秀琳琅이라

容貌은 빼어난 美玉 같네

奉先竭誠孝하야

祖上께 誠孝를 다하야

友愛碑豎岡이라

先考兄弟 友愛碑를 언덕에 세웠다네

治家以勤儉하고

勤儉으로 治家하고

教子以義方이라

義方으로 教子하였네

半生育英才하야

半生동안 英才를 教育하야

養之國精糧이라

나라의 人才로 길러냈다

曾刊自敘傳하고

일찍이 自敘傳을 出刊하였고

今彰護錦行이라

이제는 護錦先生 行蹟을 顯彰했네

中年學書道하야

中年에 書道를 배워서

縱橫如鳳翔이요

縱橫으로 鳳이 춤추듯 하고

晚參文友會하야

晩年에 文友會에 參與하야

悅心習詩章이라

기쁘게 詩文을 익혔다네

今收殘詩書하야

이제 흩어진 詩와 글씨 收拾하야

欲圖一家藏이라

一家에 所藏코자 圖謀하네

過耄猶矍鑠하니

八旬이 넘어서도 元氣가 旺盛하니

南山壽無量이요

南山처럼 萬壽無疆할 것이요

有德必有報하니

德 있으면 報答함이 있나니

可占永世昌이라.

永世토록 繁昌함을 占칠 수 있으리라.



省菴鄭吉會

生年月日：1932년 1월 4일생 (음력 1930년 11월 27일생)

出生地：全南 羅州市 老安面 金鞍里 仁川마을

- * 교직생활 45년(초등계) 봉직→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 * 6·25 참전용사→국가유공자
- * 광주시전 추천작가(서예)
- * 한국미술협회 회원
- * 한국서가협회 회원
- * 전, 나주정씨대중회 발전연구위원장